



조희연 “서울학생 파이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20 온라인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맞아 학생들을 응원하는 영상인사말을 남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내년 7월 산재보험 적용

고용부 ‘산재보험법’ 개정 입법예고
 프리랜서 업계 첫 산재 적용사례

프로그램 개발자나 코더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나 그 외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분야 종사자로 국내 약 6만 6000명으로 추산된다.

특고 특례적용 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 이후 현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커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

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등 적용 직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또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을 하면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는 재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3년 이내 신청시엔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재근로자가 특별진료기관의 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신속히 결정토록 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에 근거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이나 의결권이 없어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안건의 경우 소위원회 권한을 명확화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보호 범위 확대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분야별·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고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

산림청, 무궁화동산 사업지 17곳 선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기도 평택시 등 전국 17개소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국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친숙한 나라꽃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산림청이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성동구, 인천 계양구, 경기 평택·용

인·화성시, 강원 동해시, 충북 보은·영동군, 전북 익산시·부안군, 전남 광양·여수시, 경북 구미·상주시, 경남 김해시, 북부지방산림청(인천 연수구), 동부지방산림청(강원 영월) 17개소다.

올해는 전국 12개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25개소를 신청했다.

무궁화동산은 국비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개소당 총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용수 기자

재정일자리에 밀린 직업교육훈련 643만명 → 257만명 ‘60% 급감’

윤준병 의원 ‘교육참여 현황’ 자료
 원격참여 1년새 30% 수준 감소

(2018~2020 고용노동부 사업주훈련 참여 현황)

(단위 : 개소, 천명, 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기업수	훈련참여 인원	지원금	지원 기업수	훈련참여 인원	지원금	지원 기업수	훈련참여 인원	지원금	
집체 교육	소계	87,307	1,340	1,882	77,099	1,038	1,693	34,404	200	546
	우선지원	83,280	663	948	73,384	520	809	32,032	109	296
	우선지원 외	4,027	677	934	3,715	518	884	2,372	91	250
원격 교육	소계	87,514	5,096	1,743	72,007	1,535	1,102	34,332	787	387
	우선지원	83,513	3,494	1,411	68,441	1,163	905	32,206	634	328
	우선지원 외	4,001	1,602	332	3,566	372	197	2,126	152	5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 중 하나인 사업주훈련 교육 참여 인원이 2018년 643만명에서 지난해 257만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사업주훈련 교육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만 4821개 기업의 643만 6000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4만 9106개 기업의 257만 3000명이 참여해, 2018년의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원격 교육 참여자는 2018년 509만 6000명에서 지난해 153만 5000명으로, 3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집체교육은 급감했지만 원격교육의 증가세는 없었다. 즉, 비대

면 방식의 원격교육 훈련이 직업교육 훈련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했고, 근로자들이 단순히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규모가 영세한 우선지원 기업의 참여율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 일자리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진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들의 직업 능

력과 생산성 향상,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적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OECD가 권고한 대로 청년층, 중장년층, 고령층 및 우선지원기업에 대한 직업 훈련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 맞게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도 비대면 방식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변화된 국민 인체치수조사… 산업계 수요 반영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실시
 의류·가구·가전 등 설계에 활용
 6400명 대상 365개 항목 조사

달라진 한국인 체형에 딱 맞는 제품 설계·생산, 생활공간 설계 등을 위한 인체치수 조사가 시행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고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측정 항목과 3D 측정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를 올해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체치수 조사는 1979년부터 주기적으로 시행됐다. 현재까지 40여년간 한국인 인체치수를 측정해 온 결과, 의류, 가구, 가전, 전기전자기기, 자동차,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형에 맞는 제품 설계·생산이 가능했다. 현재까지 총 11만 7893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69세 64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를 시행한다. /산업부

인체측정이 시행됐고, 그 결과는 제품 생산 등에 활용되도록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에 보급됐다.

예를 들어 세탁기의 경우 인체치수를 이용해 사용자의 허리와 무릎의 충격을 완화하고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이로 설계하고, 엄지손가락의 길이와 동작범위를 스마트폰 설계에 반영해 인체 적합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었다. 냉장고의 경우 근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

인들도 문을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은 운전자의 시선 이동을 최소화하는 곳에 위치하도록 인체측정치가 활용된다.

해외에서 민간 주도로 인체치수를 조사한 사례는 간혹 있으나, 40여년간 국가 주도로 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성인 20세~69세 남녀 총 6400여명이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측정 항목이 종전 332개에서 365개로 확대됐다. 조사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세~44세 남녀 3200여명을 조사하고, 이후 45세~69세 남녀 3200여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동서울대 산학협력단(최경미 교수)과 충북대 산학협력단(한현숙 교수)이 공동으로 조사 사업단을 구성해 진행하며, 웹사이트(http://sizeko.rea-du.com)를 통해 피측정자를 모집한다.

/한용수 기자

농식품수출액 55.2억달러… 전년비 6.5% 증가

농식품부, 김치·장류 등 선전

김치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우리 전통 식품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3/4분기 누계 기준(잠정)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55억 19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은 김치와 장류 등 전통 식품의 선전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김치는 3/4분기 누계 1억 85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38.5% 증가했다.

이는 2012년 수출액인 1억 661만 달러를 넘어 3분기만에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2012년 당시에는 일본 수출 비중이 80%에 달했지만, 이후 미국, 홍콩, 호주, 대만 등 82개국으로 수출이 다변화했고, 올해 일본 수출 비중은 역대 처음으로 50% 수준으로 감소했다.

김치 수출 증가는 K-푸드를 비롯한 한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젓갈을 넣지 않은 채식김치나 휴대가 편리한 캔 김치 개발 등 국가별 선호를 반영한 제

품 현지화와 대형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 등의 효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김치 수출이 가속화한 만큼, 김치의 기능성을 해외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김치와 함께 대표적인 전통 식품인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의 3/4분기 누계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1%나 급증했다.

장류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한류 열풍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꼽힌다.

/한용수 기자